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창식*, 장하영**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A Study on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Gender Comparison

Chang Seek Lee*, Ha Young Jang**

Dep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Dep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D시에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감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업성취도, 가족 소득 수준 및 학교급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우울감은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정학대, 학교 폭력 요인의 설명력이 유의하였고 가정학대의 설명력이 학교 폭력 관련 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우울감, 가정학대, 학교 폭력 피해, 학교 폭력 가해,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ables related to violence affecting adolescents' depression. For this study, 1011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D city of Korea.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adolescent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academic achievement, family income level, school level. Second, depression,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s and bully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ird, A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were significant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domestic violence was higher than school violence.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ways to reduce adolescents' depres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ression,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chool bullying behavior, Adolescents

1. 서론

우울이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

적 정서 상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말한다[1]. 따라서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특별한

Received 2 August 2017, Revised 1 September 2017
Accepted 20 September 2017, Published 28 Sept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Ha Young Jang
(Dep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Email: besof@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이유 없이 일시적인 초조감, 정서적 침체감 등 우울의 제 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2].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래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전체 학생 중 35.8%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고[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서도 58.0%인 것으로[4]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울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입시 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가족 문제 등이 지목되었는데[5,6], 이러한 우울 문제는 자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청소년들은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7, 재인용] 심리적인 부작용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 혼란 속에 갈등을 느끼게 되며[8] 정서적·행동적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기도 한다. 만일, 표출되는 문제가 외현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공격성·비행으로 나타나고 내재화된 상태로 통제된다면 불안·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된다[9]. 따라서 청소년기는 그들이 겪게 되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을 적절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한편, 폭력행위란 직접적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 정서적 폭력, 위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0]. 이러한 폭력 행위는 폭력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자존감, 정신건강 등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리적인 부작용을 유발한다[11]. 특히 국내의 경우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행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포화 및 저연령화 등의 현상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이러한 폭력행위는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측변인으로 건강, 학교생활, 가정환경, 학대·가정폭력, 종교, 과외활동에 주목하였던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12], 특히 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장·단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은 생활 대부분을 집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청소년이 겪는 폭력 피해는 집에서 겪게 되는 가정학대와 학교에서 겪게 되는 학교폭력 피해로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김지영 등[13]은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가정학대 경험이 이들의 우울 및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고 Affifi 등[14]은 더 나아가 직접적인 자살 시도에 매우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 따라서 가정학대 경험은 자살 생각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 즉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가정학대는 아니지만 부부 간의 불화도 청소년의 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 재인용], 특히 정서적 학대와 큰 관련성이 있었고[16], 궁극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직접적인 학대 뿐 아니라 부부 간의 불화 등 간접적인 정서적 학대도 청소년들의 우울에 장기적인 영향력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청소년의 우울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18]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는 우울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고 이은희 등[19]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피해자들은 자존감 감소, 공포감,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20]. Olweus[21]는 학교폭력 자체를 폭력 가해 행위와 폭력 피해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동시에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도 가해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복기 등[6]에 의하면 학교 폭력 가해는 가해자의 우울 및 자살로 진행된다고 하였고 김정란 등[22]의 연구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가 그들의 우울감 및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학교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시작과 끝이 모호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23,24], 구체적으로 폭력 피해 경험은 그들의 공격성을 상승시키고[18] 이는 다시 폭력 가해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25], 이들은 교우관계의 실패로 다시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26].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 관계가 우울감에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로 미루어보면,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폭력 피해 경험 모두 그들의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언급했던 선행연구들은 변수 간 관계 및 직접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고 가정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폭력 피해의 상대적인 비교를 시도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성별에 따라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폭력 경험을 가정학대 경험, 학교 폭력 피해 및 학교 폭력 가해로 나누어, 우울감에 대한 이러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성별로 비교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학대 피해,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성별에 따른 가정학대 피해,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의 설명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점차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우울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D시의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년별 1개 반을 표집하여 조사하였고, 조사원이 직접 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이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공란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011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65명(46.9%), 여학생이 526명(53.1%)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467명(49.3%), 고등학생이 480명(50.7%)으로 서로 비슷하였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13-1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중학생이 13.7세(SD=.86), 고등학생이 16.3세(SD=1.39)였다. 한편, 학업성취도는 '상'이 184명(18.8%), '중'이 518명(53.0%), '하'가 276명(28.2%)로 '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가족형태는 '양부모'가 822명(83.3%), '편부모'가 109명(11.1%), '조손가족 및 기타'가 55명(5.6%)로 '양부모'형태가 월등히 많았다. 끝으로 가족 소득수준을 보면 '상'이 318명(32.4%), '중'이 535명(54.6%),

'하'가 127명(12.9%)로 '중'이 가장 많았고 '상', '하'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가정 학대 경험

배미희[27]의 가정폭력경험 척도를 본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학대 경험이란 부모로부터 자녀가 직접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녀학대를 의미한다[1]. 이 척도는 지난 1년동안 부모로부터 경험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며 가정폭력, 즉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자녀학대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학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2.2.2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법과 조주영[28]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관련 전문가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거쳐 최종 척도를 완성하여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의 학교폭력 즉, 유형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을 가해경험 7문항, 피해경험 7문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한다.

2.2.3 우울감

우울감은 SCL-90의 하위척도로 Choi[2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0으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을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에 따른 우울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울감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고($t=-6.592,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457, p<.001$).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상’, ‘중’, ‘하’ 집단 순서대로 우울감이 높아졌고($F=16.745, p<.001$), 가족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하’ 집단이 ‘상’, ‘중’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았다($F=15.279, p<.001$). 그러나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우울감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593, p=.553$).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011>

		Depression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465	2.17 (.85)	-6.592***
	Female	523	2.53 (.87)	
School level	Middle school	466	2.25 (.90)	-4.457***
	High school	479	2.50 (.83)	
Academic Achievement	High	183	2.15 (.93)	16.745***
	Middle	518	2.31 (.84)	
	Low	274	2.60 (.89)	
Family type	Intact parent	819	2.36 (.87)	.593
	Single parent	109	2.43 (.90)	
	Grandparent rising, etc	55	2.28 (1.00)	
			2.23 (.90)	
Income level	High	318	2.36 (.84)	15.279***
	Middle	534	2.36 (.84)	
	Low	126	2.73 (.89)	

*** $p<.001$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우울감 모든 변수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r=.540, p<.0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음으로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r=.314, p<.01$),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감($r=.260, p<.01$), 가정학대 경험과 우울감($r=.236, p<.01$),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r=.195, p<.01$),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우울감($r=.133,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1. Domestic violence	1			
2.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314**	1		
3. School Bullying Behaviors	.195**	.560**	1	
4. Depression	.236**	.260**	.133**	1
Mean	1.33	1.18	1.12	2.36
SD	.55	.36	.29	.88

** $P<.01$

3.3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1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연령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 소득수준, 2단계에서는 가정학대 경험, 3단계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을 각각 투입하여 성별에 따른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3.1 남학생의 우울감

남학생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은 남학생의 우울감을 6.2% 설명하였고, 가정학대 경험은 전체 설명력을 5.6% 증가시켰으며, 학교폭력 요인인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은 전체 설명력의 4.8%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의 변수는 남학생의 우울감을 16.6% 설명하였으며, 8개의 변수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가정학대 경험, 가족소득 수준, 학업성취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정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모델에서 연령, 학교급, 가족형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영향력은 없었다.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boys' depression
<N=465>

	Boys' depression		
	B (β)	B (β)	B (β)
Step 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09 (-.017)	.006 (.011)	-.007 (-.013)
School level(1=high school)	.200 (.116)	.198 (.115)	.227 (.132)
Academic achievement	-.204 (-.167)**	-.149 (-.122)*	-.159 (-.130)**
Family form(1=intact)	-.118 (-.079)	-.103 (-.069)	-.092 (-.061)
Family income level	-.181 (-.136)**	-.169 (-.127)**	-.178 (-.133)**
Step 2: Domestic violence		.378 (.240)***	.271 (.172)***
Step 3: School violence			.376 (.176)**
Victimization			.176 (.072)
Bullying behavior			
F	5.444	9.150	10.095
R ² change	.062***	.056***	.048***
R ²	.062***	.118***	.166***

* p<.05, ** P<.01, *** p<.001

3.3.2 여학생의 우울감

여학생의 우울감에 대한 관련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족형태, 가족소득 수준은 여학생의 우울감을 6.1% 설명하였고, 가정학대 경험은 전체 설명력을 5.9% 증가시켰으며, 학교폭력 요인인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은 전체 설명력의 3.3%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의 변수는 여학생의 우울감을 15.3% 설명하였으며, 8개의 변수 중 가정학대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학업성취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모델에서 연령, 학교급, 가족형태, 가족소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영향력은 없었다.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girls' depression
<N=526>

	Girls' depression		
	B (β)	B (β)	B (β)
Step 1: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22 (.044)	.019 (.0132)	.014 (.029)
School level(1=high school)	.078 (.045)	.144 (.084)	.204 (.119)
Academic achievement	-.258 (-.203)***	-.244 (-.192)***	-.229 (-.180)***
Family form(1=intact)	.033 (.019)	.030 (.018)	.000 (.000)
Family income level	-.059 (-.046)	-.041 (-.032)	-.046 (-.036)
Step 2: Domestic violence		.383 (.246)***	.312 (.200)***
Step 3: School violence			.342 (.118)*
Victimization			.344 (.093)
Bullying behavior			
F	5.961	10.366	10.230
R ² change	.061***	.059***	.033***
R ²	.061***	.120***	.153***

* p<.05, ***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결과 성별과 학교급, 학업성취도 및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0,31]. 그 이유로 강초록 등[32]은 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 문제를 지적한 반면, Smail 등[33]은 여성의 성 역할 특성 자체로 설명하였다. 즉, 여성은 수동성, 자기 희생, 자존감 결여 등의 역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34], 이는 진로 및 상급 학교 진학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창식 등[3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 초등학생에 비하여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본 연구 결과와 맥락상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 우울증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학업성취도가 매우 유의하기 때문이다.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하집단이 상, 중집단에 비하여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직접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부의 직업, 월소득, 모의 직업 유무 등이 청소년 우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정용철[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37]. 따라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교급과 학업성취도 수준 및 가정환경 등 심리사회적, 생태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가정학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우울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감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학대, 학교폭력은 관련성이 밀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를 동시에 낮추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정학대, 학교 폭력 요인의 설명력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13,18].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하여는 가정뿐만 학교 내에서 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그 결과는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우울감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다[4].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우울감을 낮추어줄 폭력 예방교육이 매우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과 학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학대와 학교폭력 요인의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정학대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환경에 비해 가정환경이 1차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38] 때문에 가정이 학교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폭력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초기에는 가정학대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 학교 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성별로 나누어 각 집단의 우울감 차이를 비교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별뿐만 아니라 학교급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차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한 가정과 학교폭력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왜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에 비하여 설명력이 더 높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서북부 지방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역마다 폭력 경험, 우울감 차이는 있을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포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M. H.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Temperament on Dep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09.
- [2] S.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s on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3] J. Y. Bae, "The study on Mental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 15, No. 3, pp.308-317, 2006.
- [4] Research on Suicide Prevention for Youth, www.nypi.re.kr 2013.
- [5] J. Ryu, & B. M. Kim, & H. S. Shin, & J. Y. Jung, & N. H. Choi, "Relationship with Stress from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s, Self Esteem, Coping Strategy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Crysisonomy, Vol. 6, No.3, pp.223-241, 2010.
- [6] B. K. Shin, & S. J. Le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Depression-Anxiety, and Suicide", Journal of Koreanology, Vol. , No.44, pp.281-318, 2012.

- [7] W. R. Kim, "Mediated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yungsang University, 2015.
- [8] E. H. Ha,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Cognitions on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9] R. Michael, & K. Erick, "The Relation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7, pp.47-63, 2006.
- [10] J. H. Yu, & J. S. Park, & D. H. Park, & S. H. Yu, & J. H. Ha, "Validation of the 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The practical use in counsel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4, No. 3, pp.563-578, 2009.
- [11] P. E. Mullen, & J. L. Martin, & J. C. Anderson, S. E. Romans, & G. P. Herbison,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 20, No. 1, pp.7-21, 1996.
- [12] B. D. Sohn, "A Study on the Multi-Dimension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3, No. 4, pp.481-510, 2009.
- [13] J. Y. Kim, & K. H. Lee, "Effects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5, pp.752-760, 2015.
- [14] T. O. Afifi, & M. W. Enns, & B. J. Cox, & J. G. Asmundson-Gordon, & M. B. Stein, & J. Sareen,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8, No. 5, pp.946-952, 2008.
- [15] J. R. Baek, & I. J. Jung,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Witness to Spous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9, No. 1, pp.121-142, 2013.
- [16] H. W. Park, "A Participatory Research on the Program Development of Reducing Aggressive Behavior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 No. 17, pp.101-130, 2004.
- [17] K. Kracke,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The Safe Start Initiativ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
- [18] S. M. Ba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ve mood and aggression in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3, pp.251-268, 2017.
- [19] E. H. Lee, & J. M. Son,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Junior Highschool Student who Experience School Violence: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3, No. 2, pp.149-172, 2011.
- [20] E. Y. Kim, "An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Bullying Behaviors-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1, No. 1, pp.1-22, 2014.
- [21] D. Olweus,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MA: Blackwell Publishing, 1993.
- [22] J. R. Kim, & H. S. Kim,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4, No. 2, pp.310-333, 2014.
- [23] H. J. Lee, & S. Y. Hwang, "Mediating Effect of School Victimization Experience on Adolescents' ADHD Tendency and School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 No. 42, pp.83-108, 2013.
- [24] H. S. Wei & M. Jonson-Reid, "Friends Can Hurt You: Examining the Coexistence of Friendship and

- Bullying among Early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32, No.3, pp.244-262, 2011.
- [25] A. R. Lee, & Y. J. Lee, & H. I. Yang, “The effects of Cyber Bullying and Bullied Experience on Upper Elementary Students’ Aggression and Verbal Aggress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6, pp.2437-2450, 2014.
- [26] K. E. Go, & S. R. Lee,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Middle-School Students with Victims and Offenders Experience and the Effect Variable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chool Violence Students’ Typ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23, No. 1, pp.1-28, 2015.
- [27] M. H. Bae, “A Study of Predictive Model about Offender, Victim, and Bystander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ki University, 2013.
- [28] J. Y. Cho, & I. S. Oh,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changes in experience, and emotional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4, pp.301-323, 2014.
- [29] H. K. Choi, “The process of caregiving stress among Korean caregivers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el University. 1992.
- [30] J. Y. Park,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1, No.1 pp.345-375, 2010.
- [31] U. K. No, & S. H. Hong,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early adolescents’ emotional depression changes and testing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the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2, No. 2, pp.91-110, 2010.
- [32] C. R. Gang, & Y. T. Jo, “The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Suicide Ide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5, No. 3, pp.1-27, 2012.
- [33] A. Small, & T. Gessner, & T. Ferguson, “Sex Role and Dysphoric Mood”, *Sex Roles*, Vol. 11, No. 7, pp.627-638, 1984.
- [34] J. Y. Kim, “Study of factors affecting juvenile’s mental health: Comparing middle, high, university students”, *DONGAINMUNHAK*, Vol. , No. 31, pp.493-533, 2015.
- [35] C. S. Lee, & J. Y. Park, & H. Y. Ja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1, pp.35-43, 2017.
- [36] Y. C. Jung,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Adolescents’ Depression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Gangreung University, 2001.
- [37] L. Alpern, & K. Lynos-Ruth,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all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at H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5, No. 3, pp.371-387, 1993.
- [38] E. Rhee, & M. J. Park, “The Development of An Arts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ith Schoo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Vol. 14, No. , pp.245-262, 2012.

이 창 식(Lee, Chang See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장 하 영(Jang, Ha Young)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 과(이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박사 과정)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 E-Mail : besof@hanmail.net